

남성참여교육프로그램 운영사례

- 인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버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

유 아 랑(인천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교육팀장)

최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남성의 일과 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남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가족교육사업영역에서 공통필수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남성참여교육프로그램이 가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매뉴얼이 개발되고 이를 활용한 교육사업의 진행이 권장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남성참여교육프로그램 사례를 선정하여 그 교육내용구성,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토대하여 남성참여교육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남성참여교육프로그램사례는 인천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버지학교-나는 행복한 아버지입니다’로서, 2009년 5월~2010년 4월까지 총 3건이다.

본 연구의 대상프로그램인 ‘아버지학교-나는 행복한 아버지입니다’는 20대 미만의 자녀를 둔 아버지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한국사회의 남성 및 아버지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하여 정체성을 찾고 아버지로서 역할 수행의 의미와 방법을 제시하여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가정생활참여에 흥미를 유발시킴으로써 남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교육효과의 단기성을 방지하고자 총 1박2일의 교육과 함께 후속교육까지 총5회기를 진행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의 각 회기는 주제별로 나뉘었으며 주제별 강의, 조별 나눔,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급된 매뉴얼¹⁾과 실무자 및 강사진의 다양한 내용을 토대로 하는데, 1회기는 한국사회의 남성생활세계에 대한 이해, 2회기는 부모-자녀 성격유형차이이해, 3회기는 자녀의 잠재력을 깨우기 위한 부모코칭, 4회기는 자녀의 발달과정에 따른 효과적인 아버지역할, 5회기는 가족관계향상을 위한 열린의사소통방법으로 구성되어있다²⁾. 이러한 내용으로 본 프로그램은 1년에 2건(총10회기) 운영이 되고 있으며, 평균 2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여 본 연구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6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또한 수료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아버지학교 봉사단을 운영하여 교육의 효과를 확장시켜 다양한 아버지들의 참여를 유발시키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아버지교육에 대한 효과성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역할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강의와 함께 조별 나눔 및 활동을 통해서 남성 및 아버지로서 삶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가정생활참여의지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여진다.³⁾ 프로그램 진행상 한계점은 대상자에서 찾을 수 있는데, 20세 미만의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집단층이 너무 넓어 개별 대상자의 가족생활주기, 가족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제공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남성 참여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가정생활주기나 대상자의 요구, 가족특성 등을 차별화한 맞춤형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교육프로그램과 상담, 문화프로그램의 통합, 수료생들의 지속적 참여를 유발시킬 수 있는 동아리모임 활성화 등을 제시할 수 있다.

- 1)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7) 남성의 돌봄노동참여를 위한 아버지교육프로그램과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6) 아버지가 행복한 일터만들기 중 교육내용 일부 사용
- 2) 1박2일 교육프로그램은 1~3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속교육은 4~5회기로 구성되어 있다.
- 3) 교육만족도(5점리커트척도) - 2009년 상반기 4.38점, 2009년 하반기 4.4점, 2010년 상반기 4.45점